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_053)250-3048~9_ <http://www.daegujobo.or.kr>



고령 들꽃마을 내 옛성당
사진_홍창익 비오 신부

† 오늘의 전례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31-46 참조)

오늘은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이자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그분의 위대한 힘에 굴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넘겨주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왕도(王道)를 따르는 사람, 곤경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손해와 불편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제1독서 에제 34,11-12,15-17 **제2독서** 1코린 15,20-26,28 **복음** 마태 25,31-46

입당송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화답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영성체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제일 멋진 신앙인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 | 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어릴 적 부모님의 생신이나 어버이날이 되면 저희 삼남매가 모여 고민을 하곤 했습니다. 이유는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돈도 없을뿐더러 살 것도 마땅치 않아서 결국은 무엇이 필요하신지, 무엇을 해 드리면 좋을지 여쭙 보는 걸로 마무리되곤 하였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여쭙 보면 그때마다 부모님의 대답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말 잘 듣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다.” 그러나 그때는 어려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잘 듣고 있는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그 말씀의 뜻을 이제 이해합니다.

사실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키는 것 잘 한다.’라는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의도에 맞게 결과를 낼 때 진정한 의미에서 ‘말을 잘 듣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모른다면 들어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

라면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당연히 왕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왕의 말씀으로 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할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한다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말씀에 따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한다면 왕으로 모신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의 다스리는 말씀에 따르는 것은 백성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왕께서는 강제하거나 권력으로 내리누르거나 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압니다. 오히려 당신 백성 살리시려고 가진 것을 다 주시는 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주시는 임금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뜻에 맞는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대로 그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 원하시는 그대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매일 매일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멋진 신앙 생활의 시작입니다. **필문**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을 돕기 위한 2차 헌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시리아와 이라크의 난민들을 돕는 2차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은 전액 바티칸 기금 『국제 나자렛 가정 센터』에 전달됩니다.

제30회 성서주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담화문(요약)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2014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때 우리는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인간의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잃어버린 소중한 생명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구원의 빛을 더욱 갈망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6회 아시아 청년 대회’와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메시지는 진정 우리 민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지금도 ‘복음의 기쁨’이 되어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특별히 124위 순교자를 복자로 시성하시며 한국 땅에 뿌려진 첫 말씀의 씨앗이 순교로 꽃을 피워 지금의 한국교회로 열매 맺게 되었음을 높이 치하하시고, 우리가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세상은 이기와 탐욕, 인명경시와 물신사상이 만연한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의 축적과 출세 지향의 삶으로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대하며 죄와 상처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박은 신앙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시려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인류의 기쁨과 행복, 사랑과 평화, 빛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

구하고 실현하는 사람들인 신앙인들에게 신앙을 위한 중요한 양식은 곧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날마다 먹어서 영적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현대 세계의 복음 선포에 관한 권고집 『복음의 기쁨』에서 신앙의 실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강생하신 하느님 아드님에 대한 참 신앙은, 자기 증여, 공동체 소속감, 봉사, 그리고 다른 이들과 직접 만나 이루는 화해와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강생을 통하여 온유한 사랑의 혁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복음의 기쁨, 88항)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받은 후손답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믿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의 신앙에 동참하여 세속화의 온갖 도전에 맞서서 싸우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구세주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둘 때, 우리도 주변을 둘러보고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사랑의 계명을 익힐 때,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선교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주님의 십자가에 담긴 무한한 구원의 능력을 믿고 한 알의 밀알로 신앙의 신비를 산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교회가 진정 세상을 위한 빛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2014년 11월 23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손삼석 주교

제대 위의 십자가고상과 초



성당 안에 들어가면 먼저 중앙에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상징이자 성당의 중심인 제대가 있고, 그 위에는 십자가고상과 초가 놓여 있습니다. 제대에서는 성찬 전례만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다른 것을 함부로 올려놓을 수 없지만 제대 위나 곁에 놓인 십자가고상과 초에는 각각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대 위에 십자가고상을 모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의 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의미로 미사성제가 십자가의 제사와 동일함을 나타냅니다. 제대 위에 고상을 놓는 대신 긴 십자가를 제대 곁에 세워 둘 수도 있습니다.

촛불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방을 비추시는 그리스도님을 상징합니다. 또한 초가 스스로를 태워서 빛을 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스스로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타올라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요한 순간이나 또는 전례 의식을 거행하는 데 자주 쓰입니다.

미사 때 제대에 놓이는 초는 제대의 장식에 속하지만 그리스도의 현존을 강조하고 흠숭과 축제의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니만큼 반드시 제대 위에 놓을 필요는 없고 제대 곁에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를 제대 위에 놓을 경우에는 전례가 거행되는 장면을 가리지 않도록, 특히 성찬 예식의 거행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제대 위에 초를 올려놓는 것은 전례 집전을 경건하게 하고 축제의 성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전례의 성격이나 중대성에 따라 제대 위에 올려놓는 초의 수도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연중시기의 평일이나 기념 등급의 성인 축일에는 좌우 하나씩 두 개의 초를, 연중시기의 주일과 사도나 복음사가의 축일과 같은 축일 등급에는 좌우 각각 두 개씩 네 개의 초를 올려놓고 중대한 대축일의 경우에는 양쪽에 세 개씩 여섯 개의 초를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제대 위의 초는 짝수로 올려놓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끔 초를 하나 더 켜 놓는 경우가 있는데 교구장 주교님께서 미사를 주례하실 때는 주교 대례미사임을 표시하는 초를 하나 더 놓습니다. **참고**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내 아들이, 모든 것에 앞서서 주님을 사랑하여라

권력자가 사욕이 없으며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역사와 민중이 그들을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동양 사람들이 요임금과 순임금을 이야기한다면, 서양 사람들은 성왕 루이 9세(1214~1270), 우리가 흔히 부르는 라틴식 이름으로는 루도비코의 이름을 입에 올립니다. 유럽의 왕으로서는 최초로 고리대금을 법으로 금지하고 민중이 참여하는 재판을 열었으며, 프란치스코 3회 회원으로서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스스로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생전에 이미 국민들로부터 성인으로 칭송을 받은 그는 사후 불과 27년 만에 보니파치오 8세 교황님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아래는 그가 임종의 자리에서 태자에게 남긴 유언의 일부입니다.

“내 아들이, 모든 것에 앞서서 주님을 사랑하여라. 네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사가 무의하다. 자주 고해하고 성체를 영하며, 네 힘이 닿는 대로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

하여라.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이런 보속이 마땅한 사람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행운을 주시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청하여라. 말을 교묘하게 하는 이들보다는 양심이 바른 이들을 주변에 두고, 그들이 너의 잘못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하여라. 정의를 세우는 데 엄정하되,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는 약자의 편을 들어라. 죄스러운 험담이나 허느님께 모독이 되는 말을 네 앞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와 분쟁이 생겼을 때는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여 정말 피할 수 없을 때에만 군대를 일으켜야 한다. 불평등과 착취를 나라 안에서 몰아내되, 우선 네 집안에서부터 그리 하여라. 왕이 스스로 궁정의 비용을 줄이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백성이 따라 할 것이다...” **궤문**



금주의 성인

11월 23일	성 골롬바노(설립자, 수도원장, 선교사, 보비오, 540-615년), 성 암필로키오(주교, 이코니움, 400년경) 성녀 루크레시아(동정 순교자, 메리다, 306년), 성 클레멘스 1세(교황, 교부, 순교자, 30-101년)
11월 24일	성녀 엔플레다(과부, 수녀, 휘트비, 700년), 성 크리스고노(순교자, 아퀼레이아, 304년) 성 프로타시오(주교, 밀라노, 352년), 성녀 플로라(동정 순교자, 코르도바, 851년) 성 포르티아노(수도원장, 미란다, 533년)
11월 25일	성녀 가타리나(동정 순교자, 알렉산드리아, 310년경), 성 메르쿠리오(군인, 순교자, 250년경) 성녀 유쿤다(동정녀, 레지오 에밀리아, 466년)
11월 26일	성 레오나르도 카사누바(신부, 증거자, 저술가, 포르토 마우리치오, 1676-1751년) 성 바솔로(은수자, 베르지, 620년경), 성 시리치오(교황, 399년) 성 실베스테르 고졸리니(설립자, 수도원장, 1177-1267년), 성 콘라도(주교, 콘스탄츠, 975년)
11월 27일	성 비르질리오(주교, 잘츠부르크, 784년), 성 세쿤디노(주교, 던솔로글린, 375-447년) 성 야고보(순교자, 페르시아, 421년), 성 페르고(주교, 8세기경)
11월 28일	성녀 가타리나 라부레(수녀, 환시자, 1806-1876년), 성 시메온(저술가, 1000년경)
11월 29일	성 라드보드(주교, 위트레흐트, 918년), 복자 레템토(순교자, 1638년) 성 사투르니노(주교, 순교자, 툴루즈, 257년), 성녀 일루미나타(동정녀, 토디, 320년) 복자 프레데리코(증거자, 레겐스부르크, 1329년), 성 필로메노(순교자, 안키라, 275년)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故) 박형진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선종 1주기 미사

일시: 11.27(목) 오전 10시, 장소: 가톨릭 군위 묘원

11월 26일 수요일은 (故) 이상호 베드로 신부님 3주기입니다.

■ 제20회 한일주교교류모임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1월 11일(화)부터 13일(목)까지 서울대교구청에서 열린 제20회 한일주교교류모임에 참석하셨다.

사진 제공: 평화신문

■ 정평성당 성전봉헌미사



대주교님께서는 11월 16일(일) 오후 3시 정평성당에서 제대를 축성하시고 성전봉헌미사를 봉헌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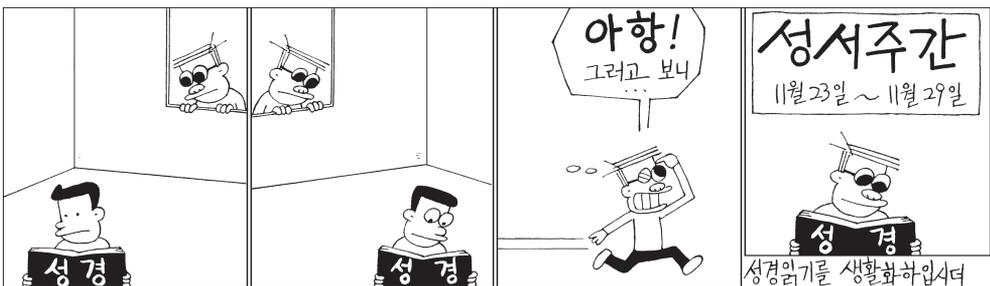
■ 중국 사제단 사목연수



대주교님께서는 11월 14일(금) 오후 2시 중국 교구의 요청으로 대구대교구에 사목연수를 온 8명의 사제단과 간담회를 가지셨다. 중국 사제단 사목연수는 11월 21일(금)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제는 평소에도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월 24일(월) 11:00 도량성당		11월 25일(화) 14:00 신암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4일(월) 11:00 계산성당	한국의방선교회 후원회미사	11월 26일(수) 14:00 토마스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11월 24일(월) 11:00 수성성당		11월 26일(수) 10:00 죽도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1월 25일(화) 14:00 계산성당	바느기도회 월례미사	11월 27일(목) 14:00 삼덕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1월 26일(수) 10:00 평화성당	-	-

성소 | 피정

제110차 선택 주말

기간: 12.12(금)~14(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미혼남녀신자, 예비자 / 선착순 50명
문의: 김효나 아녜스, (010)3521-0102
<http://cafe.daum.net/daeguchoice>

내적여정 피정

기간: 12.12(금)~14(일)
주최: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
문의: 안젤로수사, (010)3664-3986

수도생활 체험 피정(노장년층)

기간: 12.27(토) 16:00~29(월) 13:30
장소: 성베네딕도 왜관피정의집 / 13만 원
대상: 국민은행, 608001-04-116050
주최: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3567-6083(입금 후 연락)

연말 위로와 감사의 피정

기간: 12.27(토) 15:00~28(일)14: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대구)
대상: 미혼 여성 누구나
신청: (010)2649-2045

청소년과 함께하는 가족 피정

중·고·등: 1.17(토)~18(일)
초등: 1.10(토)~11(일)
장소: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대전)
교육비: 4만 8천 5백원(간식포함)
접수: (042)584-0654 (가족단위 선착순)

교육 | 모집

대림 성탄 전례음악 세미나

일시: 11.23(일) 14:00~17: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강당
대상: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
주최: 가톨릭음악인협회
문의: (010)8996-8675

중독자 및 가족상담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기간: 12.2(화)까지
대상: 사회복지 및 심리전공자
문의: 대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38-3778, 8778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편선예약가능
주관: 제주기사사도회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바로로말 - 행복한 책 읽기

일시: 12.3(매주 수) 10:00~12:30
장소: 공평동 바로로말서원
내용: 자아성장과 신앙의 성숙
회비: 12만 원(10회), 대상: 40~50대 여성
문의: (010)7449-1117 / 425-5185

인천교구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성당, 헬스장, 사우나, 물리치료실 등
각종 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위치: 인천 서구, 문의: (032)280-1500

살레시오회 돈보스코직업학교 학생 모집

만15~23세 남자,1년기계가공조립과정(00명)
기계가공, CAD/CAM, 자동화기계, 인성교육
교육비/기숙사비무료, 훈련수당지급, 고검반
운영, 방통고 편입학지도, 취업알선, 면접전형
문의: (02)828-3600

히말라야랑탕-안나푸르나 트레킹

일시: 2015.5.4(월) 11박 12일
주최: 한국가톨릭문화원(산행방)
문의: (010)4711-8188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내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원장 정순우(요셉)
범어내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녜스) 010-5048-7739

알아 두면 참 편한
계산성당 연도실
-가톨릭 신자만을 위한 서비스
-운구에서 발인까지 모든것
(장례절차/행정서류/성당에서 도와드릴)
상담안내 | 256-2046
24시간 상담가능/도우미·상담사 무료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믹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연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이문희 대주교님과 함께하는 때야르 특강

일시: 11.29(토) 15:00
 장소: 남산동 대신학교
 합동강의실(강의동 지하 1층)
 주제: 오늘날 중국에서 생소하지 않은 인물 '때야르'
 강사: 왕해연(王海燕), 북경 언어문화대학 교수
 대상: 누구나 무료참석

제1회 가톨릭영화제 대구 순화상영회

일시: 12.5(금) 19:00
 장소: 대명동 대경빌딩 3층 『앞산밭 북카페』
 상영작품: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 효과』, 가톨릭영화제 독립영화부문 대상 『절경』
 대상: 관심 있는 분 누구나(무료)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 YHY청소년센터

다양한 강좌 및 동아리 운영
 초·중등 무료 공부방
 어머니 기도회 모임(매주 월요일)
 장소: 대명로 182 대경빌딩 지하1층
 문의: 청소년센터, 657-9220

행사 | 모임

한티순교성지 사진 공모전

주제: 한티순교성지의 사계절
 제출: 2015.7.31(금)까지
 규격: 11×14인치(합성불가)
 문의: (054)975-5151

교육 | 모집

수성성당 감사와 은혜의 날

일시: 12.2(화) 10:00~12:30
 19:00~21:30
 장소: 수성성당 성전
 내용: 찬미, 특강, 미사, 치유안수
 강사: 이상재(가스톨)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간병인 모집

환우들의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실 간병인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00명(수시) 입회비 없음.
 문의: 빈첸시오 간병인협회, 428-0057

채용 | 안내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427-4400(면접 후 채용)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4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성탄위문품 신청

군중후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 군 위문품을 보낼예정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11.26(수), 접수: 본당 사무실
 대상: 신자자녀 현역사병(의경, 전경포함)
 ※ 훈련병, 교육병, 부사관, 장교 제외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이수봉
 문의: 253-9550

2015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2015년도 대구주보에 게재될 광고는 순번추첨방식을 통해 접수되며 기존 1,2차 순번추첨 외 위임신청제를 도입합니다. (대기 번호표는 없음)
 • 1차 순번추첨 일시: 11.24(월) 9: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 2차 순번추첨 일시: 11.24(월) 13:00 (당일에 서류를 제출하신 업체 대상)
 제출서류: 1. 교적 사본 2. 본당신부님 추천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광고문안 5. 사회복지 관련 사업체인 경우 추가로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님 추천서
 광고비는 전액 계좌이체로만 받습니다. (접수일부부터 익일까지) 사업주가 냉담자이거나 신자들의 유익을 해치는 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9

“겨울방학 특집 가족캠프”
일본 성지순례 문화탐방
 나가사키, 운젠, 구마모토, 야소 (4일)
 ※ 출발일 - 12월 17일, 1월 5일, 21일
T. (053)253-3399
 (주)성기여행 조현레(유스티노) 홍미희(안젤라)

비염·축농증
 코 질환 집중 치료
코비한의원
 대구수성점 대표원장 이판제(투까)
 ☎ 053-753-9795 수성구청역 4번 출구 앞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로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JINSUNG Architects & Interior
진성건축
 건축사 · 인테리어 사무소
 건축설계 / 인테리어 / 전원주택
 대표/건축사 성호근(다니엘)
 이종배(안드레아)
 효목동 효동초등학교 입구
T.017.242.7927, (053)952-7927

행복한 재할·요양 병원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원목실 운동, 율레미사 봉헌
 원목팀장 김미형(요세페나)
 이범수(대건안드레아)
☎(053)426-6000 (중구 보건소 옆)

(주)한투어
한투어 성지순례전문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성모발현지 외 다수
☎ 053-427-7090
 안요한, 김마리아막달레나

이원의료기
 혈압계 · 혈당계 · 휠체어 · 산소치료기
 뜰 · 부항기 · 주열기 · 찜질기
 체온계 · 욕창매트 · 환자용품 · 안마기
 실버카 · 보호대 · 글루코사민 · 오메가3
 번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대구웨딩몰
 www.dgweddingmall.com
 • 대구 최대규모 웨딩박람회 전시장
 • 대구 전지역 예식장 상담 및 혜택
 • 웨딩드레스, 스튜디오 할인
 • 혼수 할인
 매일 착한 대구웨딩박람회 개최
 문의 053-425-8216 최창열 바실리코 010-9687-0500